

# 교육과정 구축부터 학습성과 관리까지

## 전주대, 대학기관평가인증 10개 부문 모두 기준 충족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한 '2019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5개 영역, 10개 부문 모두 인증기준을 충족하며 인증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경영, 교육, 시설, 사회적책임 등 기관 운영의 전반을 검증하는 제도로 인증 대학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 운영을 개선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주대는 이번 평가인증에서 10개 평가 부문(대학경영, 대학재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수, 직원, 교육시설, 학생지원, 대학성과, 사회적책임)의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1주기(2014년)부터 적용받아 온 대학기관평가

증을 2023년까지 유지하게 됐다.

전주대는 학생역량개발시스템(ASSTAR)을 도입해 학생의 역량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피드백하고 있으며, 교육, 전공 등 모든 교육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축부터 학습성과 관리까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호인 총장은 "교육부터 연구, 봉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

이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인증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기업과 지역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평가인증은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 지원 사업에 활용되며 ▲고등교육 질 보장과 신뢰 부여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석면해체 모니터단 집중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계자 집중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풍양고 시청각실에서 62개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 석면 제거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니터단은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학부모·민간단체·감리원·석면제거 업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육은 학부모 및 석면모니터단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해 현장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석면제거 추진 방향 △석면일반 및 제도 △모니터단 활동 요령 등이다.

강사진으로는 교육부 교육시설 담당 김동주 사무관, 전남대 석면환경센터 윤성준 박사, 고용부 전북지역본부 이상열 부장, 학교석면안전관리 민·관협의회 심동섭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석면업체와 감리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모니터단의 관리 감독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26일 Hi-PBL 적용 교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Hi-PBL 운영 사전교육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6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수학습 혁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Hi-PBL(Howon Industry - Problem Based Learning) 적용 교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실천적 능력을 높이는 Hi-PBL 구성전략'이란 제목으로 2020학년도 1학기 Hi-PBL 적용 교과목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 설계 및 운영 방안 측면의 상세 안내가 이뤄졌다.

'Hi-PBL'은 4차 산업혁명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현장 친화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PBL 교수모형을 활용한 호원대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이다. 2020학년도 1학기 시범(Pilot) 운영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 성과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호원대만의 교수모형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김은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유아교육과 교수)은 "21C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4C(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역량을 총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육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방법 혁신에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동계방학 중 교수법 특강 개최 및 대교협 교수법 연수 참여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성과나눔 워크숍으로 역량 강화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유·초·중등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의 성과나눔 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부터 삼성생명전주연수소에서 유·초·중등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멘토링 참여 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수

업 컨설팅 네트워크 성과 공유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의 다중 수업컨설팅 네트워크와 이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 간 수업성장 공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수석교사 주도의 수업연구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적·체계적 교육활동을 공유하고, 관계 형성 및 회복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한 해 동안 나눈 교원 관계증진 프로그램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수업컨설팅 네트워크 성과발표 (수석교사) ▲학교급별 분과협의 ▲수석교사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멘티 성과 발표 ▲분과별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2019년도 운영 결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2020년도 발전적 계획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의 교류를 통한 관계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수업에 대해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자기성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 고교생 2명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 완주고 공희준·전주한일고 배명현 학생

전북지역 고교생 2명이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인공은 완주고 2학년 공희준, 전주한일고 2학년 배명현 학생이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전국 고등학생과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해 격려·시상하는 '2019 대한민국 인재상'에 2명의 전북학생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공희준 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곤충에 관한 연구와 교내 동아리 활동에 생물학과 관련된 진로를 연구한 바 있는 인재로서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완주군 청소년의회 의원, (주)칠명바이오 대표 등 다양한 교내·외 학생 자치와 창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8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지역 예선과 본선을 거쳐 부처 통합 리그와 결선을 통해 최종 10인을 뽑는 왕중왕전에 진출하여 최종 9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배명현 군은 의학자를 꿈꾸고



공희준 배명현

있는 학생으로 인문·사회분야의 전문학적 독서까지 섭렵해 교내 합법토론대회에서 최우수상, 수학·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창의적 사고로 챔피언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동료 학생들의 수학문제 질문을 해결해주는 봉사활동과 지역 청소년센터를 통해 꾸준한 연탄봉사에 참여하는 등 배려와 공동체 삶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인재다.

2019 대한민국 인재상의 중앙심사위원장을 맡은 권오현 교수(서울대)는 "오늘의 상이 수상자들에게는 더 큰 성장의 계기가, 우리 사회에는 인재 양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청년 TLO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 개최

### 우수기술 소개·현장서 94명 채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은 27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청년 TLO 연구원들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선도기업 구인 구직 현장 면접의 날' (이하 현장면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란 대학 또는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말한다.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 등과 공동 주최한 이번 '현장 면접의 날'은 도내 지역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선도기업들과 예비 취업생들을 연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2019년 하반기 채용을 원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와 2018년에 산학협력단이 채용한 청년 TLO 연구원들도 함께 참여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도내 선도기업들에 소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현장 면접의 날 행사에는 도내 21개 선도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관리직, 연



구직, 생산직 등 총 94명을 채용했다. 한편 청년 TLO 육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재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을 졸업한 만 34세 미만 이공계 학사 및 석사 졸업생을 산학협력단이 청년 TLO 연구원으로 채용,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민간이전을 돕고 취·창업을 지원한다.

전북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됐다.

조재영 단장은 "우리대학 청년 TLO 연구원들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지역산업 성장과 학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